그로피우스

- 20세기 건축의 진정한 지도자 -

Fagus Factory.

20세기 건축가 중 발터 그로피우스만큼 큰 역사적 역할을 한 사람도 없고 평가가 엇갈리는 건축가도 드물다. 그에게는 지도자라는 말이 작가라는 말보다 어울린다.

그의 가계는 위대한 독일 건축가인 칼 프리드리히 싱켈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싱켈의 영향을 받았다. 그가 뮌헨과 베를린에서의 건축 수업을 마치고 마드리드에 가서 일하던 중 오스트하우스의 소개로 당시 최고 건축가이던 페터 베렌스에게 사사하게 된다. 거기서 르 꼬르뷔제와 미이스를 만난다. 베렌스 사무실에서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으나 충실한 협력자인 아돌프 마이어와 함께 그 자신의 사무실을 차린다. 이때부터 그는 젊은 건축가들의 지도자로 나서게 된다.

당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대량 생산 주택의 사회적 수요와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글을 써서 AEG의 라테나우 회장에게 보낸다. 이 일로 해서 그 자신의 일을 얻게도 되었지만 그의 뜻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는 새로운 공업 생산의 시대를 대비한 공장 개조와 확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편지로 써서 유력자들에게 보낸다. 파구스 베르크의 벤샤이트도 그들 중의 하나이다. 벤샤이트는 이미 설계가 시작된 파구스공장의 부분적 재설계를 의뢰한다.

그로피우스.

1차 세계대전 중 4년 간 그로피우스는 상사로서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의 최전선에서 근무한다. 전쟁의 와중에 작곡가 구스타브 말러의 미망인인 알마 쉰들러 말러를 다시 만난다. 그는 그녀와 1915년 결혼한다. 그들은 1910년에 만나 깊은 사랑에 빠졌었다. 전쟁 동안 만나지 못하게 되자 그녀의 끊임없는 열정과 변덕이 그들을 다시 헤어지게 했다.

1918년 그로피우스는 브로노타우드와 예술 동맹을 결성하고 건축 선언을 발표한다. 1919년 그로피우스는 드디어 예술 동맹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상적 기구로 ‘ 바

벨크분트전시장 콜론느(좌)와 바우하우스(우).

우하우스'를 바이마르에 창설한다. 바우하우스선언에서 그로피우스는 '모든 시각 예술의 최종 목표는 완전 건축이다. 건축과 조각과 회화를 하나로 통합하여 수백만 노동자의 손이 새로운 시각 형식을 만들어 내게 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자'고 선언한다. 그것은 새로운 예술가와 장인을 위한 학교였다. 클레, 간딘스키, 모홀리나기, 브로이어 등 후에 세계적 작가가 된 젊은 예술가들이 바우하우스에 모여들었다.

젊은 작가들은 학생들과 연구하고 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금속 작업, 목수, 인테리어, 가구 제작 등 모든 것을 함께했다. 1925년 바이마르에서 뎃사우로 옮기면서 워크숍, 스튜디오, 오피스, 오디토리엄, 기숙사, 그리고 그로피우스의 개인 사무실까지 포함된 브리지로 연결된 빌딩 컴플렉스가 그의 지도하에 탄생하였다. 20세기 현대 건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바우하우스가 세상에 형상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저소득층을 위한 햇빛과 녹지가 가득한 어반 스케일(urban scale)의 하우징에 큰 관심을 가졌다. 지멘스슈타트 베를린 블록(1929 30)은 그런 노력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바우하우스 발코니.

1937년 하버드대학으로 초빙되면서 과거 건축에 몰두하는 보자르식 전통을 버리게 하고 사회적 가치와 공학에 근거한 새로운 건축을 심고자 하였다. 그가 하버드건축대학원장에 취임하면서 보자르식 교육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새로운 신건축 교육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갔다. 하버드에서 그로피우스는 1주일에 이틀은 꼭 학생들의 스튜디오에 나타났다. 그는 거의 말이 없었고 더군다나 그리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모든 학생들은 열성적으로 그를 따랐다.

1946년 그로피우스는 젊은 건축가들과 함께 건축가협동체라는 뜻의 TAC를 창설한다. 1949년 TAC와 그로피우스는 하버드대학원센터를 설계했다. 1957년 당시 세계 최대의 항공사였던 팬암항공사 사옥을 설계한다. 맨해튼 파크 에비뉴 한가운데 우아하면서도 거대한 모습을 드러낸 팬암빌딩은 많은 뉴요커로부터 파크 에비뉴의 스카이라인을 차단하였다는 비난을 듣기도 한다. 1956년에는 아테네의 미국 대사관을, 그리고 1957년에는 바그다드대학을 설계했다.

1956년 그는 개선 장군같이 독일로 돌아간다. 그가 태어난 베를린에 그의 이름을 딴 5만 인구의 주거 도시 '그로피우스슈타트'와 그가 낳은 바우하우스 아카이브가 세워진다. 1967년의 바우하우스 대회고전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다. 1969년 7월 5일 그가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전 세계 건축계는 그를 20세기에 가장 큰 일을 이룬 지도적 건축가로 애도했다. 그는 어떠한 천재보다 더 위대한 것을 이룬 20세기 건축의 진정한 지도자였다. CJ

글 · 사진 : **김석철** · 베네치아대 · 콜럼비아대 초빙 교수 · 건축가